농림수산부 95년 사업계획 생약협회

한국생약협회는 95년 중점사업으로 우리 생약살리기운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우리생약살리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략 수출품목의 개발, 종자 및 종근개량 사업 등 올 한해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95년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를 강화함으로서 새로운 재배기술의 체계적인 농가보급, 우량품종 생산보급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우리생약살리기운동 추진

1)우리생약살리기운동 추진본부 설치
2)전략수출품목의 개발
3)자생 및 재배품목의 순화재배, 종자 및 종근 개량사업
4)생약원료로 차 음료개발에 관한 연구
5)학술세미나 개최
6)전시회 개최
7)전시포 및 채종장 설치
8)공판장 활성화 차원으로 도매시장 건립
9)본부에 규격화 공장설립 추진
10)토양성분검사(토양, 약재) 예:구기자, 길경, 진피등(중금속 및 농약 잔류기준치 설정)
11)과학영농기술개발 보급 및 슬라이드 제작(교육용)
12)회원연수교육(사무소장, 공판장장, 이사) 및 수련대회
13)계약재배 및 계획생산 유도

우리생약살리기 운동 본격 추진

대외 협력
• 우량종자 및 종근보급(농촌진흥청)
• 기계화 단지, 가공공장, 도매시장 설치(농림수산부)
• 홍보(신문사, 방송국)
• 학술세미나(생약연구위원)

제2회 우수 국산한약재 전국 선택

시회 개최
*제1회 전시회 성공적인 반응과 보완점 고려
-시기:춘, 추 분기
-장소:시민교통 편리한 옥외(예:여의도 광장, 경동한약상가 주변 복개천)
-기간:일요일 정도
-규모:각 도별 전시관 설치하여 전시 및 판매

생약도매시장 설립(공판장 활성화 방안)

시장형태 및 개설지역
1)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판장 형태의 시장건설
2)개설지역:시장거래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지역 근교(예:구리시)우선 개설
*서울지역 공판장의 사업추이에 따라 주요산지에 확대 건설

주취급 대상품목
1)거래량이 많은 길경, 당귀, 황기, 사삼, 작약, 천궁, 산약 등을 주거래 품목으로 취급한 후 점차 확대

관리 운영
1)관리방법:생산자단체 직영관리
2)거래방법:전자식 자동경매제

거래물량 확보 유치
1)기존 유사도매시장인 경동시장에서 거래실적이 우수하고 상품판매능력이 있는 자를 중매인으로 선정
2)공판장의 조기 상권형성을 위한 자금지원(농림수산부)

사업효과
1)약용작물의 도매기능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2)약용작물의 공동거래 및 유통개선 선도
3)약용작물의 품질개선 및 등급, 거래단위 규격화 촉진

생약가공시설 사업 추진(안)

시설 지역
전국 8개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각 1개소

총 사업비
14,200백만원(1개소당 1,775백만원)

재원구성 비율(1개소당)
정부 보조 50% 8백87백만원
지방비 보조 30% 5백33백만원
주식 20% 3백55백만원

년간 가공생산능력
1만2천%~1만6천%(1개소당 1천백-2천%)

규모
*연 건평(3백평)
1)지하 1백평:저온창고시설
2)지상 1층 1백평:성력기계화 가공시설
3)지상 2층 1백평:전시실, 연구실, 관리실, 교육장

교육 실시

*간부급 자질향상 연수교육(안)
-실시기간:1995•8월중(하계 수련대회)
-실시대상:본사무소장 이상(공판장장 포함)
-실시인원:약 2백50명
-실시과목:제규정, 방침, 행정처리, 회원관리외
*중앙회원 이하 지방회원(생산회원)교육
-실시기간:지역별(지구별) 자체교육계획에 의거 년 1회 필히 실시
-실시과목:생약유통현황, 품종별 재배기술
-품목개발 및 재배기술 지도를 위한 시험재배 확대

생약연구위원회 활성화(방안)

-자생 및 재배품목 순화재배종자 및 종근개량 사업(지황, 황기, 작약, 백출등)
-생약원료로 차 음료개발 응용에 관한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토양성분검사(토양, 약재) 예:구기자, 길경, 진피등

지역특작목 사업지원 자금(생약부분) 활용강화

(95농림수산부 배정액)(각 군에 수시 접촉과 유대강화로서 기존 배정자금 활용 요망)
*개소당 표준 사업내용(Package):3억1천5백만원
-공동육묘포 설치
-생약재배 시설
-생약조제 시설
-생약 집하장
• 보조 20%를 50%로 확대 요청
*유통공사 농안기금 생약수매자금
-기간:현행 10개월을 2년으로 연장 요청
-융자비율:현행 8%를 5%로 인하 요청

생약협회기능 및 운영활성화

-생약협회 조직 및 운영 실태 강화
-실질적인 생산자 단체로 육성 강화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확대 실시

종자시범포 설치

-품목:지황, 백출
-국내 부족한 량을 수입에 의존않고 종자수입하여 계약재배생산 및 전시포 내에 채종포 마련
-시범포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농림수산부)

약용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

경쟁력 제고대책

(1)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
○주요품목 표준품종 선발 및 개발
-개발대상:산수유, 오미자, 두충, 밤풍, 작약, 목단, 백지등 10작목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중(96년까지 완료 목표)

(2) 생산비 절감 추진
○생력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지역 전환
-재배지대:산간경사지→평야지
○생력농기계의 개발 진도에 따라 농가보급을 위한 자금지원 실시

(3) 새로운 재배기술의 체계적인 농가보급
○주산단지 지역에 품목별 시범포 설치운영
-시범포를 통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

(4) 우량품종 생산보급 확대
○약용작물종묘도 종자법에 포함시켜 우량종묘생산공급유도(종자법에 반영)
○우량종묘 생산보급 단계별 실시
-1단계:작목반별 공동육묘장 설치운영 확대(기설시중)
-2단계:생산자단체를 통한 우량종묘생산보급

(5) 생약조제 시설지원
○생약의 단순가공에 필요한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포장기등 기자재 및 시설지원
○지원대상:농협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

○ 고품질 품종개량

품 목	개 발 목 표
시 호	○싸이코사포닌 성분 1.5% 다수성
산 수 유	○고품질, 무핵과, 다수성
당 귀	○추대방지, 다수성
구 기 자	○대립종, 내병성, 다수성
작 약	○파이오니 프로닌 성분 2.9%이상, 다수성
오 미 자	○대립종, 양질, 다수성
지 황	○천근, 양질, 다수성

'95년도 생약주요품목 주산단지 조성계획

*농림수산부 기존계획과 병행 추진

품목명	단지수	주산단지명	
		기 지 정	'95추가 계획지역
길 경	2	예천, 영풍	
구기자	2	청양, 진도	
당 귀	10	정선, 평창, 인제, 삼척, 태백시, 봉화, 울진, 홍천, 제천, 금산	태안, 이천
독 활	1	임실	
맥문동	1	청양	밀양
사 삼	1	울릉	
산수유	2	구례, 양평	
산 약	3	안동, 영풍, 진양	
시 호	2	정선, 북제주	고흥, 의성, 여천
오미자	1	인제	장수
의이인	1	연천	
작 약	3	임실, 의성, 거창	보성
지 황	2	서천, 정읍	안동, 제천
천 궁	1	울릉	거창
택 사	1	승주	
향부자	1	고령	
황 금	1	여천	
황 기	3	정선, 삼척, 제천	포천, 이천
18개품목	38	38	13

장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실적	연차별투자계획			
		'95	'96~'98	'99~2004	계
계	9,170	17,298	98,840	149,250	265,388
생산·유통·가공	3,520	9,450	64,340	59,250	133,040
가격안정 및 수출	5,650	7,848	34,500	90,000	132,348

삼도시호 수매를 마치고

조만식 기획실장

시호수매를 마치면서

지난 94년은 어느해 보다도 농사짓기에 매우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우리생약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던 「우수국산한약재전시회」를 끝내자마자 12월26일 서산군 수매를 시작발점으로서 경북 금릉군, 상주군, 문경군을 30일까지 8천여kg을 94년 마감을 짓고 9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무식을 끝내고 1월4일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첫날 4만3백62호 농가의 수매를 시작하여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여천군, 신안군, 광양읍, 장흥군, 완도군(81개군) 1천1백56농가가 2만7천3백45kg 수매를 마쳤다。

해마다 수매에 느끼는 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30~40%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 농가 수익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였다。

또한 재배방법이 재래식에 치우쳐서 소득손실에 직결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재배 통신문이나 한국생약보를 통해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과 인건비 절약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지만 재배자 여러분께서 따라 주지 않고 있어 결과에 있어서는 허탈한 감을 갖고 또한 실무자로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협회에서 지도하는 재배방법으로 따라 주시는 분은 1년의 농사를 마감짓고 수매후의 만족감을 느끼고 외화벌이에 한몫을 다하였다고 자부심을 갖는 반면, 힘만 들고 소득보장이 안되어 불평을 늘어놓는 분도 있고, 수확후에 조제과정이 아직도 미숙한 점을 들추가 있다。 꼬집어 말한다면 검수 과정에서 지적도 해마다 해온 사실이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건조, 세미작업이 잘 안되고 있고 두 작업은 다른 해 보다도 많이 좋아졌다。

재배농사에서 품질향상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수출의 길은 많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재배농가에서 힘을 기울여야할 길은 재래식 영농방법에서 탈피하고 기계화 영농으로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으로서 국제 경쟁력에 대처하여 야만이 우리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며, 올해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여러 회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다。